

무면허 자가접종·미등록...반려동물 관련 위법 '여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한달여 앞

작년 기준 전국 반려가구 550만 넘어...상당수 법제·개정 몰라 약국도 주사바늘 등 판매...등록제 도입 10년 불구 유기견 꾸준

개나 고양이 등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있다. KB경연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 인구 수로는 1천262만 명에 달한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가 7만9천200마리로, 미등록 개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개 유기 방지 등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고, 다음 달 27일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동물생산물 부모권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위·불법 행위가 여전히 보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단속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수

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다.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2개이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상당수가 관련 법을 모르고 있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취급하는 약국조차 해

당 법안의 개정과 상관없이 자가접종용 주사바늘과 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 동구 소재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반려견 자가접종용 주사기와 약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자격증 유무 여부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약을 내줬다. 해당 약국 약사에게 "무면허 자가접종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우리는 판매를 할 뿐 접종 여부는 구매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2014년 반려동물 유기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및 공중위생 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반려동물 몸 안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심거나 외출 시 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목걸이 등을 착용시키면 된다. 하지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더러는 알고 있지만 비용이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등록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

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가 지난 2019년 4만4천22마리에서 지난해 7만9천200마리로 2배 가까이 늘어 등록률이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기동물 역시 지난 2015년 1천703마리에서 지난해 3천43마리로 2배 가까이 급증해 등록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관계자는 "유기견, 유기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한 법이 있는 만큼, 체감도 높은 단속과 위법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기자



“5·18 배우러 왔어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은 덴마크 실케보르그(Silkeborg)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16일 동구 전일빌딩245를 방문, 해설사로부터 80년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교사·학생 35명은 5·18 자유공원과 망월동 구묘역, 옛 전남도청, 5·18기록관 등을 18일까지 탐방한다. /김애리기자

전남서 주택 화재로 장애인 잇따라 숨져

장흥 20대·광양 30대

장흥과 광양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잇따라 숨졌다. 1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6시48분께 장흥군 장흥읍 소재 한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40여분 만인 오전 7시28분께 완전됐으나, 집은 전소돼 소방 추산 2천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선 거주민 A(3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정신지체 1급 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화재 당시 함께 있었던 아버지가 걸음을 잡혀주며 대피를 유도했으나 현장을 벗어 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주방에 있던 냉장고 전선에서 단락 흔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불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난 것으로 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12시37분께에는 광양시 광양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발생 40분 만인 오전 1시17분께 주택 내부 56.7㎡를 태우고 꺼져 소방 추산 799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 내부에선 사망한 B(30대)씨가 발견됐다. 부모와 함께 살던 B씨는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잠에 들어 다른 가족과 달리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 및 화재 경위 파악 등을 위해 국가수사기관 내용을 의뢰했다. /안재영기자

'5만원권 968매' 위조지폐 유통하려던 20대 덜미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아...강진경찰, 긴급체포 후 경북경찰로 인계

1천장 가까이 되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하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위조통화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한 A(20)씨의 신병을 전남 경북한 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0분께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천84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SNS 대화방 등을 통해 위조지폐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타 지역에서 강진으로 배송된 위조지폐를 건네받기 직전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강진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북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A씨가 받으려 한 위조지폐는 5만원권 968매로 모두 일련번호가 같았다. 위조지폐는 박스 하나에 담겨 화물차를 통해 운반됐는데, 경찰은 운전기사 운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진경찰은 A씨 체포 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경북 한 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강진=정영록기자

빈상자로 속여 환불 휴대전화 되판 20대女 구속

4차례 범행 6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구매, 택배로 받은 뒤 상품을 빼내고 "빈 상자가 왔다"며 결제금을 환불받고 이를 중고로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절도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업체에서 주문한 휴대전화를 택배로 받은 뒤 상품을 빼내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결제금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수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4대를 A씨는 중고로 되팔아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로부터 "택배 안에 물품이 없다"는 항의가 계속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택배 회사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12일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웃의 택배 4개를 훔친 여죄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이육근기자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운전 30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구속됐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 B씨를 만나기 위해 남구 진월동까지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정황을 발견,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주성학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NEW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저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